▪ 교회소식 ▪

1. 장로취임 : 박범희 장로 취임감사예배가 오늘 오후 1:30에 있습니다.
2. 수요성경공부 개강 : 3월 14일 수요성경공부를 개강합니다. 신진식 목사가 민수기를 강의합니다. 공부하실 분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교육부회의 : 교육부회의가 오늘 12:30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4. 세례입교 : 이번 부활절에 (유아)세례를 받거나 입교를 희망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고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세례교육은 17일(토) 오후 2시, 입교교육은 24일(토) 오후 2시 교회에서 있습니다.
5. 별세 : 지난 4일 차혜심 권사님이 별세하셔서 장례를 엄수했습니다.
6. 신앙실천 : 사순절 기간에는 사순절 달력에 있는 성경본문을 묵상하고 실천사항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대접 : 박범희 장로, 박미영 권사
떡 대접 : 노미향 성도

다음 주 설교 본문	눅 22:31-34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2부	김기석	윤성종	오자영

3월	1부 영접위원	김성우	헌금위원	박유경
	2부 영접위원	곽권희 송동준 강세기 정경례 박경원 이소애		
	2부 헌금위원	박홍재 안홍숙		

오늘 식당 봉사	박미영 이은주 주은경 서안나 국지연 이성범 박범희 박기영		
다음주식당봉사	최현옥 김신실 안상숙 공재랑 허희라 남윤경 임주빈 이주경		
오늘설거지봉사	청파7속	다음주설거지봉사	2남선교회
커피 판매 봉사	4남선교회	다음 주 주차봉사	정윤성

110 Since 1908·5·1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259 전화: 02)713-5254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사순절 제4주 】 인도 1부 : 김재흥 목사
2부 : 신진식 목사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38. 예수 우리 왕이여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담임 목사

▲ 경배의 찬송 ····· 29. 성도여 다 함께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햇빛과 햇볕으로 뭇 생명을 깨우고 살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평화의 하나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조심스럽게 대화의 물꼬를 튼 이 민족을 돌보아 주십시오. 평화에 이르는 길을 찾아 헛되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곧 길임을 깨달아 그 길을 걷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정의의 하나님,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사사로이 욕망을 채우는 이 시대의 바로들을 꾸짖어 주시고,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이 땅의 십브라와 부아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십시오. 우리 모두, 주님 주신 소명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 시 30:5,11 ····· 인도자

▲ 교 독 문 ····· 127. 사순절(4) ····· 다 함께

▲ 영 광 송 ····· 5. 이 천지간 만물들아 ····· 다 함께

2부대표기도 ····· 조항범 권사

2부응 답 송 ····· 찬양대

2부찬 양 ····· 84.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 다 함께

▲ 성경봉독 ····· 마 21:28-32 ····· I. 인도자
II. 이성범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 I.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 마중물 찬양대
II. 어린양을 보라 청파 찬양대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곽정자 구명자 국지연 권미정 김광일 이부용 김성수 김성순 김수진 김영미
김영순 김영희 김예준 김재환 김진선 김재흥 최희영 김정길 최숙화 김정훈
이진영 김태정 김해선 노신후 문병욱 문복순 박기영 박민아 박상욱 임서영
박석원 양선용 박숙미 박인혁 고숙이 박재우 정충원 박준민 최광희 박지혜
박해숙 배삼순 백묘현 서수진 서정순 서해나 설규범 송효진 신진식 변혜정
신현일 안성호 김희숙 안지민 양경해 왕수명 원용일 최현선 유경주 유금주
윤영미 윤정득 은종인 이경남 이광석 이경희 이광섭 김수연 이국노 김민화
이동천 이범석 류정욱 이수자 이용현 최연실 이우상 이계월 이인웅 오송경
이재문 이재삼 전정현 이재우 배이화 이지하 이한림 김명희 이행진 임 영
정경례 장기환 장병준 박소현 장승희 장의림 전성균 전아영 정두리 정원석
김현영 정종삼 조미선 조병무 송양진 조영순 최병민 서지연 최소라 고인성
최 숙 최승주 조호진 최연실 최영민 이상미 최재욱 이수정 최진성 최영은
최 현 한선희 한지원 허신열 허정호 홍윤선 황현성 이오복

감사헌금

고다온 김나름 김대규 박경애 김주아 김주희 김지유 문복순 박기태 박재영
이현정 박진주 박창운 허정윤 방경선 신진식 변혜정 오민용 이광재 이상도
이순이 이시경 이유일 김미희 이진영 한양미 임종수 임채진 이영희 장동열
최윤주 강승희 장현희 정구봉 진선영 최형서 허호범 박성실
김인걸 문영혜(결혼30주년) 김성순(어머님 장례) 이치림 강상연(건강회복)
장원호 박성희(건강회복) 무명12

생일감사헌금 김남종 백묘현

녹색꿈헌금 김반야 김향자 정효진 채일석 무명2

▪ 집 회 안 내 ▪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초록가게 상설 운영 중단에 대한 안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를 지향하는 청파교회는 2009년 2월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소속 초록가게 5호점을 열었습니다. 이 공간을 통해 청파교우들은 창조세계를 보전하는 일에 작게나마 참여할 수 있었고 그 수익금으로는 교회 주변의 이웃을 돕는 일에 함께 해왔습니다.

그러나 초록가게 설립 초기에 비해 다양한 재활용 매장이 곳곳에 자리 잡았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공간 문제와 위생 문제가 지속되어, 숙고 끝에 2018년 3월부터 초록가게 5호점의 상설운영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초록가게 상설운영은 중단하지만, 연간 행사로 진행되어 오던 초록장터는 '아나바다' 취지를 조금 더 강화한 '초록나눔마당'이라는 이름으로 꾸준히 이어질 것입니다. 아울러 기독교환경운동연대와 함께 지구를 돌보기 위한 생활 속 실천 방법을 지속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그동안 기부, 봉사, 구매로 초록가게를 지켜주신 교우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각자 속한 지역사회에서 아나바다를 꾸준히 실천해주리라 믿습니다. 재활용 물품은 아래 기관들을 통해 기부해주시거나, '초록나눔마당'이 열릴 때 청파교회로 기부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파교회 환경부

아름다운 가게 www.beautifulstore.org
옷캔 http://otcan.org/ 제3세계 의류지원 NGO
열린 옷장 https://theopencloset.net/ 정장 기부 및 대여 기관
더드림스토어 /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

말 씀	**두 아들**		김기석 목사
거룩기도			다 함께
찬 양	286.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다 함께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담임 목사
공동체 소식			담임 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 도 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부르심에 용기를 내십시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사십시오.

다 함 께: 아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술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며 몸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 복			담임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장로 취임 감사예배	**낮 집 회 / 설교 : 이범석 목사**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 **믿음으로 읽는 글** ■

낭송이란 존재가 또 하나의 텍스트로 탄생되는 과정, 몸이 곧 책이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고미숙

중국 송나라 학자인 문절공(文節公) 예사는 열 가지 맑은 소리로 솔바람 소리, 시냇물 소리, 산새 소리, 풀벌레 소리, 학 울음소리, 거문고 소리, 바둑돌 놓는 소리, 섬돌에 비 떨어지는 소리, 창에 눈이 흩날리는 소리, 차(茶) 달이는 소리를 꼽는다. 이들보다 더 나은 소리가 낭랑하게 책 읽는 소리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책 읽는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까지 기쁘지는 않지만, 자식의 책 읽는 소리만큼은 이루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다"고 실토한다. 여느 부모다운 고백이다.

모든 고전은 낭송을 염원한다는 말이 있다. 실제로 낭송에 최적화한 텍스트로 동양 고전을 꼽는다. 혼자 또는 함께 소리 내어 읽고 읽고 또 읽어 본 사람은 안다. 그 소리가 조각도가 되어 내 몸에 텍스트를 한 줄 한 줄 새겨 넣는다. 그러다 암송 단계에 이르는데 그땐 책이 없어도 소리가 절로 나온다. 몸이 책이 된 것이다. 이를 두고 고미숙은 낭송을 "존재가 또 하나의 텍스트로 탄생되는 과정"이라 말한다.

종교가 핍박을 받고 경전이 발각되면 처형당하던 시대에 신자들은 제 몸을 책으로 삼았다. 기독교도들은 성경 66권을 나눠서 달달 외웠다. 복음서(마태, 마가, 누가, 요한) 낱권을 '쪽복음'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만 암송하는 신자, 마가복음만 암송하는 신자가 따로 있었다. 성경이 없어도 한자리에 모이면 예배하는 데 어려움이 없던 비결이다. 비밀집회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하면 '요한 집사'가 나와서 1장부터 21장까지를 줄줄 암송하고 다른 신자들은 말씀의 목마름을 달랬다. 신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그것은 교회이면서 한 권의 온전한 성서였고, 신자들이 흩어지면 그들 각자는 '쪽복음'이었다.

아무리 낭독이 좋다 한들 모든 책을 낭독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습득해야 할 정보의 양이 늘어나서 음독만 고집하기엔 한계가 있고, 애초에 묵독을 염두에 두고 쓰인 텍스트를 매번 낭독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음독의 시대를 떠나보내고 나서 우리는 시나브로 님비곰비 묵독에 최적화된 몸으로 진화되었다. 그러나 묵독의 시대에도 소리 내어 읽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텍스트를 만난다. 아니 자기가 먼저 육성으로 옮겨 달라고 아우성치는 문장을 만난다. 그 요청에 응답하면 안다. 세상에는 구강을 통과해야 자신을 또렷하게 드러내는 문장이 있음을.

벗들에게 고전이든 종교 경전이든 내 몸이 책이 되는 경험이 살아생전 한 번쯤은 있기를 바란다.

- 박총, 「읽기의 말들」(유유) 중에서